

후기청소년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

- ▶ 일시 : 2013년 4월 10일(수) 10:00
-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 주최 : 국회의원 강은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사말 ■ ■ ■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 ‘후기청소년 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이지만,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고등학교 연령대 이하에 해당되는 18세까지의 정책과제에 치중해 왔습니다. 또 그마저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최근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단지 투표할 자격이 주어지고, 호칭이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는 이전의 청소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업획득이 늦어지면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정책연구를 위하여 청소년 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후기청소년지원정책을 만들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후기청소년의 현안과 쟁점을 통해 후기청소년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후기청소년 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여러분의 좋은 방안을 들려주시면 후기청소년 정책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부연구위원님, 조혜영 선임연구위원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길은배 회장님,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님,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조사관님, 한국고용정보원 정연순 진로교육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 원장님과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가 후기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4월 10일

국회의원

강 은 희

인사말



바쁘신 와중에도 후기청소년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평소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강은희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20대 초반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세대들은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기청소년세대가 처한 미시적, 거시적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은희 국회의원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후기청소년세대를 위한 총괄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정책과제 수립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을 비롯한 직원들과 귀한 시간 내어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님, 전상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정연순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은희 국회의원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축 사 ■ ■ ■



안녕하세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신 강은희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매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과 잠재력 계발, 글로벌 역량 강화, 인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 연구를 위해 애써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과 연구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88만원 세대’, ‘삼포세대’라고 할 만큼 후기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등교육 체계는 대학 입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 입학조차도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중고시절 공부에 매달렸던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미숙하고 의존적인 자아 정체성, 자신의 적성이나 특기, 선호도에 대한 혼란스러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열패감 등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대안을 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등록금과 학교생활에 따른 생활비는 미래의 부채로 떠안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학비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영어실력, 자격증 취득, 인턴, 해외연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등 이력서 꼬리표를 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취업은 안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후기청소년 세대의 현안과 쟁점, 정책과제 등을 다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각계 많은 전문가, 관계기관, 입법기관이 모여서 후기청소년들이 지나친 입시경쟁 교육의 그늘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학 교육체계, 상상력이 넘치는 진로 모색을 위한 프로세스,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제도의 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 상 희

축 사 ■ ■ ■



먼저, ‘후기청소년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성가족위원회 강은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재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준비하고자 마련된 참으로 뜻 깊은 자리입니다.

후기청소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며 유익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최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층 분화와 갈수록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이 우리 후기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국가주역인 우리 청소년이 행복해야 합니다.

특히,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후기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저마다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청소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성장발판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세움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후기청소년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우리 후기청소년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여성가족부 장관

조 윤 선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09:30~10:00	▶ 등록 및 접수
10:00~10:05	▶ 개회식
10:05~10:10	▶ 인사말 - 국회의원 강은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10:10~10:25	▶ 축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상희 -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 토론회 - 좌장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25~10:30	▶ 장내정리 및 발표자 소개
10:30~10:50	▷ 발제 1. 후기청소년 관련 현안과 쟁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2. 후기청소년 정의와 정책과제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50~11:25	▷ 토론 -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전상진(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장)
11:25~11:45	▶ 자유토론
11:45~12:00	▶ 종합정리
12:00	▶ 폐회

목 차

발 제 1

- 후기청소년 관련 현안과 쟁점 1

김 지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제 2

- 후기청소년 정의와 정책과제 39

조 혜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1



후기청소년관련 현안과 쟁점 :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김 지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기청소년관련 현안과 쟁점 :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본고는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의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실태조사는 만19세~24세 대학재학생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현안 이슈들, 즉 등록금, 주거, 취업, 근로, 여가와 소비 등과 관련된 생활 및 의식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2012년 전국의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4년제 대학 재학생 1,200명과 2/3년제 대학생 1,200명, 총 2,4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생 후기청소년세대를 둘러싼 현안과 쟁점사항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2.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의 현안과 쟁점

1) 주거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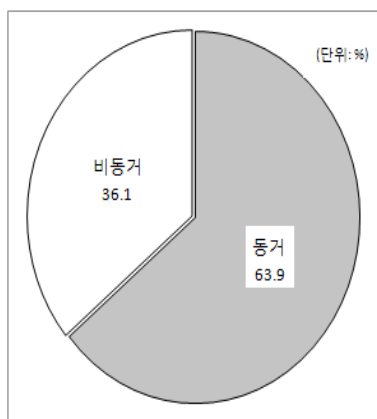
청년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조사된 여러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보금자리 마련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주거복지 수준이 낮다는데 있다. 청년연대에서 발표한 「2011 청년의 삶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14.2%이고, 주거비로 인한 부채경험이 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청년유니온에서 조사한 「최저임금과 청년생활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지출 항목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는 지역별로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는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지방은 주거문제가 서울지역에 비해 그다지 문제화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주거마련 및 주거비 부담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경제 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며,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여건과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취약한 후기청소년들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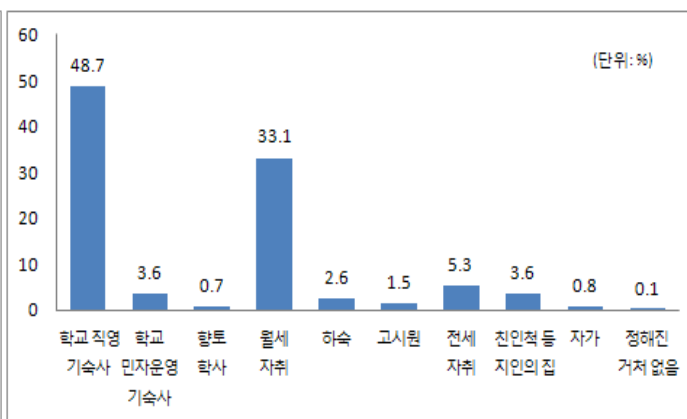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현 시점의 대학 재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의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과 조달경로 등을 중심으로 주거실태를 파악하였다.

(1)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주거 형태

조사대상인 대학 재학생 중 63.9%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36.1%는 학교 기숙사나 전월세 등의 형태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인 52.3%(학교 직영: 48.7%, 민자운영: 3.6%)는 학교기숙사에 살고 있으며, 33.1%는 월세자취, 5.3%는 전세자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주된 주거형태는 기숙사 또는 월세자취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월세자취가 기숙사와 더불어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의 주된 주거형태로 나타난 것은, 대학 재학생 중 타지학생의 비율은 49%이나 기숙사 수용률(수용인원/총 재학생수)은 17.8%(국토해양부, 2012.4.27)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부모님과 동거 여부



【그림 2】 부모님과 비동거 학생의 주거형태

주거형태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대학소재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의 기숙사 거주 비율이 가장 낮고, 도의 읍면지역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대중교통편을 통한 학교로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체 기숙사 수용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낮으나,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의 거주비율은 서울지역 대학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거주 비용이 국립대 직영기숙사 비에 두 배 넘게 비싸며, 사립대 직영 기숙사에 비해서도 50%이상 비용이 높다(서울경제, 2012.10.4)¹⁾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기숙사에 거주할지라도 거주 비용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의 월세자취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전세자취 비율이 다른 지역 대학생에 비해 매우 높고 이와 동시에 고시원과 같은 불안정 주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기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다른 지역들과 다르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 **부모 비동거 학생의 지역별 주거 형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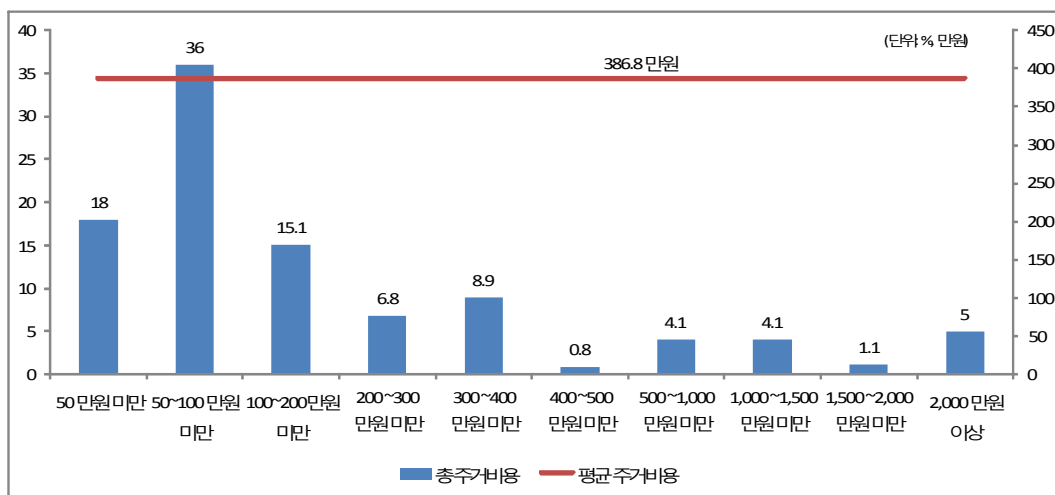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학교 직영 기숙사	학교 민자 운영 기숙사	향토 학사	월세 자취	하숙	고시원	전세 자취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집	자가 (본인, 부모님 명의)	정해진 거처 없음
전 체		872	48.7	3.6	0.7	33.1	2.6	1.5	5.3	3.6	0.8	0.1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99	15.2	7.1	5.1	36.4	9.1	7.1	17.2	2.0	1.0	0.0
	광역시	162	37.0	3.1	0.0	40.7	3.7	2.5	5.6	5.6	1.2	0.6
	도지역 중소도시	391	52.4	3.8	0.0	34.5	1.5	0.3	3.8	3.1	0.5	0.0
	도지역 읍면지역	220	65.9	1.8	0.5	23.6	0.9	0.5	2.3	3.6	0.9	0.0

1)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 대학별 평균 기숙사비 현황」 자료에 대한 보도 기사 ‘사립대 민자기숙사비 국립대의 두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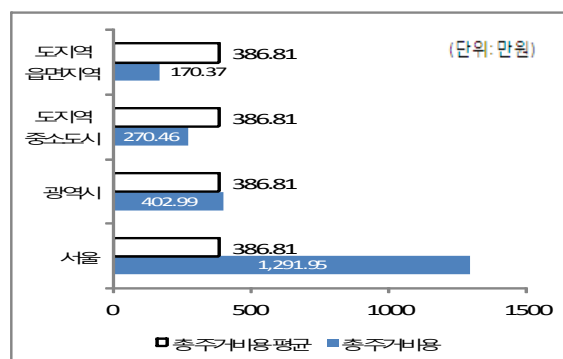
(2) 부모와 비동거 학생의 주거비용 및 주거비 부담

기숙사, 학사,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대학 재학생의 총 주거비용은 평균 38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별 총 주거비용은 서울 1,291만원, 서울 외 광역시 402만원, 도지역의 중소도시는 270만원, 도지역의 읍면지역은 170만원으로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나 향토 학사를 제외한 보증금이 요구되는 주거형태, 즉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의 평균 보증금은 373.7만원이며, 이 보증금을 제외한 월평균 지출 주거비는 30.7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총 주거비용



【그림 4】 지역별 총 주거비용

주거비용은 대부분 부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의 96.3%가 부모 지원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며, 3.0%만이 본인 근로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의 주거 복지 수준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주거형태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그 수가 적기는 하나 향토 학사(16.7%)나 고시원(15.4%)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근로활동을 통해 거주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주거 형태별 주거비용 조달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지원	본인 근로	은행 대출	장학금
전 체		833 ^{주)}	96.3	3.0	0.4	0.4
주거 형태	학교 직영 기숙사	425	97.9	1.4	0.2	0.5
	학교 민자 운영 기숙사	31	90.3	0.0	6.5	3.2
	향토 학사	6	83.3	16.7	0.0	0.0
	월세 자취	289	95.2	4.8	0.0	0.0
	하숙	23	100.0	0.0	0.0	0.0
	고시원	13	84.6	15.4	0.0	0.0
	전세 자취	46	95.7	4.3	0.0	0.0

주) 부모와 비동거자 총 872명 중 무응답자 39명 제외.

2) 등록금 부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2년 교육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71.3%로 고교졸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으나 고등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사적 비중이 높아 OECD 주요국과는 다른 양상을 갖는다. 예컨대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고등교육 비용의 사적 비중은 77.7%로 OECD 평균(31.1%)의 두 배가 넘는 반면, 공적비중은 22.3%로 OECD 평균(68.9%)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한국금융연구원, 2012).

이와 같이 높은 대학진학률 및 교육비의 높은 사적 부담의 문제는 2000년 중반 이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었다²⁾. 등록금 부담의 문제가 가시화되자 현 정부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2010년 1월)을 통해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³⁾하는 등 등록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화하고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장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이미 등록금의 절대 금액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높아진 등록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같은 대안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마련을 위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다⁴⁾.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학금이나 부모의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생 스스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11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 대출 규모는 한국장학재단,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만을 대상으로 볼 때 잔액이 10.5조원이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였으나 일명 ‘대학생 신용불량자’와 같은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학생 대출 취급 자체를 지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말 현재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의 대출 용도를 살펴보면 절반은 학자금(50.3%)이고, 학자금 비중은 2009년 37.3%, 2011년 49.8%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2.8.28 보도자료)⁵⁾. 이는 대학등록금으로

2)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1998년~2010년)

년도	등록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인상률	년도	등록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인상률
1988	7.1	6.2	2003	6.9	3.0
1989	4.9	5.7	2004	6.7	3.5
1990	11.8	8.6	2005	5.9	3.6
1992	15.5	6.2	2006	6.6	2.8
1994	13.2	6.2	2007	6.6	2.2
1998	13.7	4.9	2008	6.7	2.5
2000	0.5	7.5	2009	0.5	4.7
2001	9.6	2.3	2010	1.6	3.2
2002	5.9	4.3		-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각 연도)

3)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등록금인상 불가, 위반시 행·재정 제재. ‘등록금심의위원회’ :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7인 이상 구성하여 해당년도 적정 등록금 산정. 단,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총수의 3/10 이상 구성. (제5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자료-③: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P.6 〈참고1〉, 2012.2.3)

4)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정보공시 2012년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 국공립대 411만원, 사립대 738만원.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1년새 52.6% 감소’ 2012.8.28

인한 대학생과 그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납입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을 총액과 실납입액 그리고 장학금의 수준을 살펴보고, 절대 다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의 조달 방법을 알아보고,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 등록금 납입 현황

조사대상자들이 2012학년 1학기에 납입한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총액 중 교직원 자녀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금액과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입한 금액은 267.7만원으로 총액의 8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 확대 및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는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의 1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 등록금 납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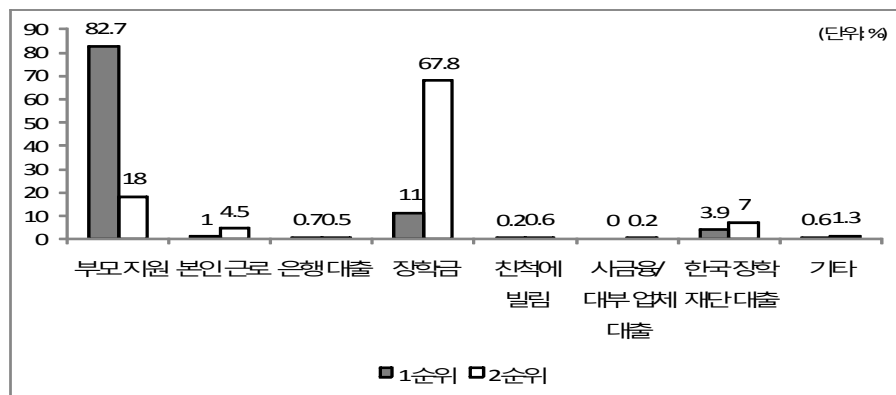
(단위: 명, 만원, %)

구분	등록금 총액		실제 납입 금액		면제 금액		장학금액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금액(만원)	2,417	323.1	2,258	267.7	44	4.1	882	51.2
총액대비 비중(%)		100.0		81.7		1.3		17.0

(2) 등록금 조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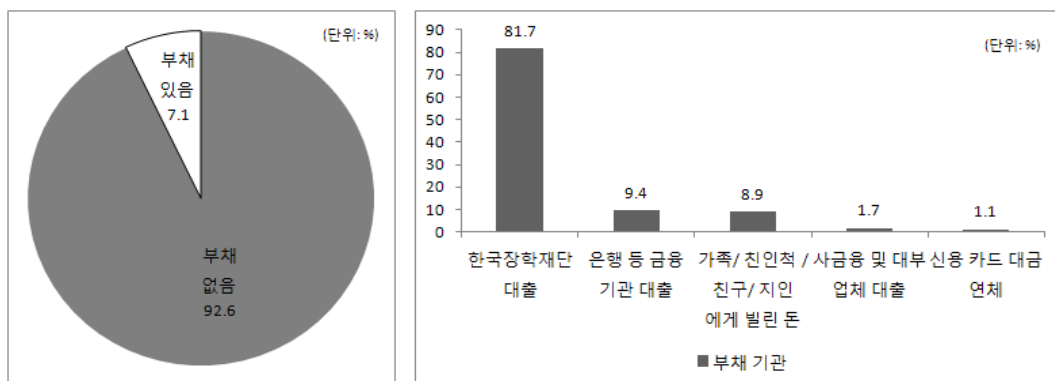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2012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은 일차적으로 82.7%가 부모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수단으로는 장학금(1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마련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조달한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의 비율(67.8%)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지원(18.0%), 한국장학재단 대출(7.0%), 본인 근로(4.5%) 순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여건 상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학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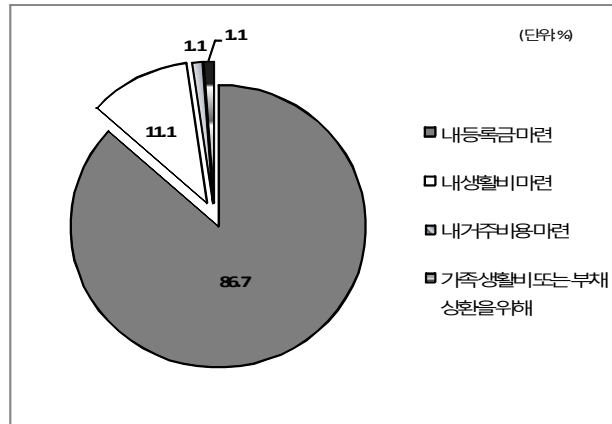


【그림 5】 대학생 등록금 조달방법

부모의 지원이나 장학금 또는 본인 근로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 등의 형태로 부채를 지게 되는데,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7.1%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81.7%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의 주된 부채 사유는 [그림 7] 과 같이 등록금 마련(86.7%)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등록금이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기 전에 이미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세대를 양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6】 부채 유무 및 대출 기관



【그림 7】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사유

(2) 장학금 지원 서비스 수혜 여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 중 57.1%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는 국가장학금의 특성 상,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신청률의 경우 월평균 200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상의 소득계층의 학생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들의 신청률은 74.5%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율의 경우 신청률과는 달리 월평균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계층의 대학생들에게서 수혜율이 약 7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도 50%이상의 수혜율을 보였다. 또한, 학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실제 신청률은 51%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수혜율은 2/3년제가 59.4%, 4년제가 54.8%로 2/3년제의 수혜율이 약 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장학금 지원 서비스 신청률 및 수혜율

(단위: %)

구분		신청률	수혜율
전체		51.3	57.1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4.5	75.6
	200~300 만원 미만	59.2	74.5
	300~400 만원 미만	50.4	58.6
	400~500 만원 미만	47.3	55.5
	500만원 이상	52.8	50.4
학제	2/3년제	51.1	59.4
	4년제	51.4	54.8

3) 재학 중 근로

등록금 부담과 함께 높은 생활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즉 재학 중 근로의 목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변화의 양상은 이전의 목적이 원하는 추가적인 소비가 주였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등록금 충당이나 기본생활비 마련 등의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이와 같이 변화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의 성격은 대학생들의 삶의 질 또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실태조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참여연대에서 2008년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 4년제 대학 25개 학교 재학생들을 조사한 자료⁷⁾에 따르면, 대학생의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66.5%는 등록금 마련 이외에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이외에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대체로 재학 중 근로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연구들(김우영, 2002; 채창균, 2002; 김주섭, 2003; 이병희, 2003)이 다수이다. 이들 연구들에서 논의된 재학 중 근로의 효과는 서로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즉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준비 등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직업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병희, 2003; 이승계, 2007)을 미치기는

6) 제2차 콜로키움(2012.8.2) 청년유니온 **양호경** 팀장 발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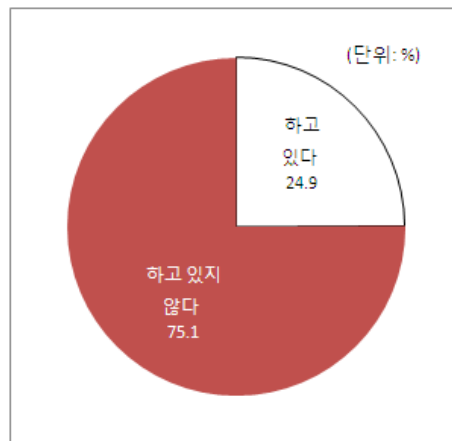
7)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실태조사 보고서3-등록금: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와 대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08-2-12),

하나, 재학 중 근로경험이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단순 업무에 불과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의 획득이나 체계적인 경력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임금효과도 부재하다(김우영, 2002; 이병희, 2003; 이승계, 2007)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현 시점에서의 재학 중 근로, 즉 일 경험이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재학 중 근로가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대학생들의 변화된 재학 중 근로 실태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갖는 재학 중 근로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근로 여부 및 근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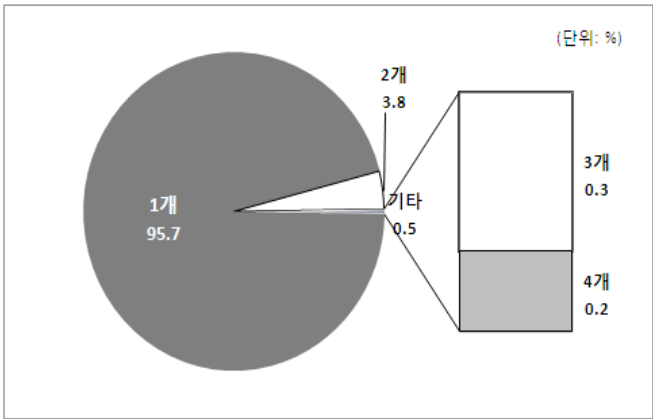
학기 중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4.9%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도 대학생 4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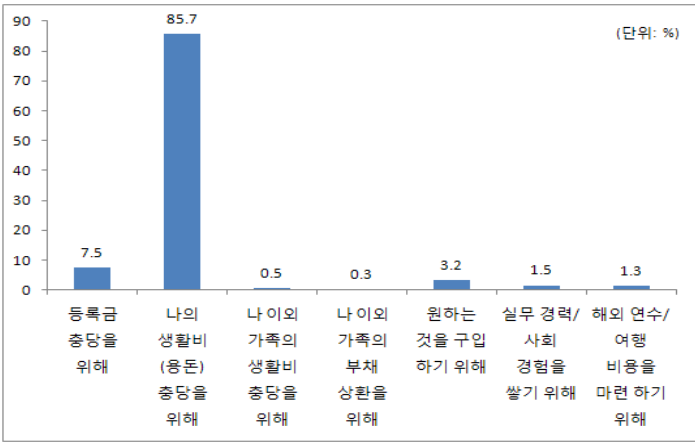
【그림 8】 재학 중 근로 여부

근로여부와 더불어 일을 한다면 몇 개의 일을 어떠한 이유에서 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9]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의 95.7%가 한 개의 일을 하고 있고, 3.8%의 학생들이 2개의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나 3개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학생도 포착되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기·단순업무가 많음을 고려해 볼 때 장기간의 연속적이지 않은 일로 짐작된다. 한편 재학 중 근로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생활비 또는 용돈 충당을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충당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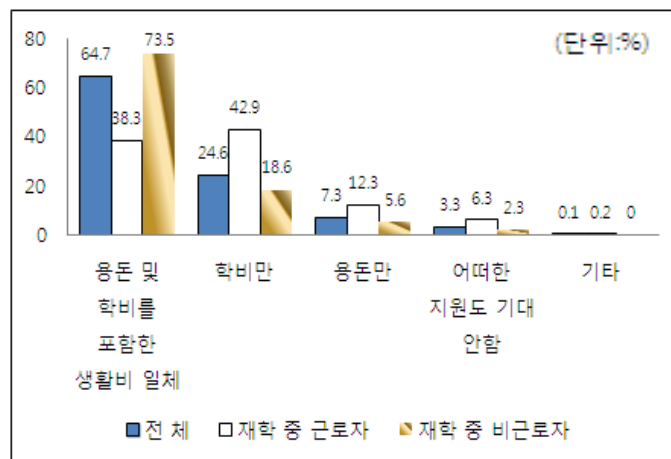
【그림 9】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종류 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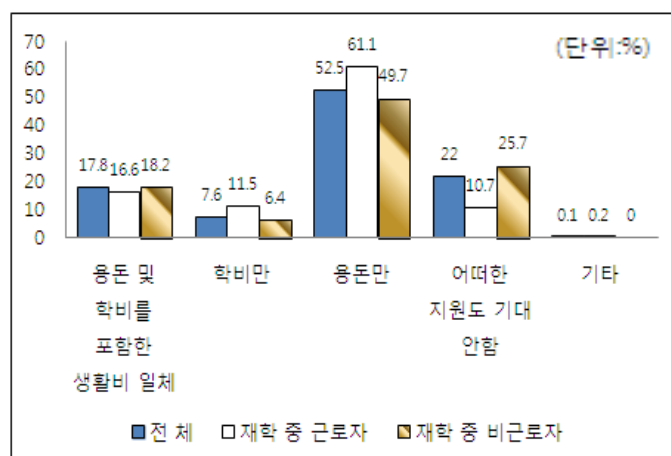
【그림 10】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그림 10]과 같이 등록금보다는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학 중 근로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등록금 납입에 대한 일차적인 주체가 대학생이기보다는 부모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등록금은 부모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 하는 동안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정도와 부모가 원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에 관한 인식정도를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다. 재학 중 근로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는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서 용돈과 학비 등 생활비 일체를 부모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해당 비율(38.3%)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는 ‘부모에게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비율(6.3%)이 비근로활동 학생들(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재학 중 근로여부와 대학생활 동안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



【그림 12】 재학 중 근로여부와 대학생활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에 이어 대학생활 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바라는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를 살펴본 결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서 부모가 자신에게 어떠한 자립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25.7%)이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10.7%)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부모가 용돈만이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비율(61.1%)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4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여부에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과 같은 객관적 여건과 함께 부모가 기대하는 자립 수준의 인식 및 부모에게 기대하는 지원 수준과 주관적 인식이 주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근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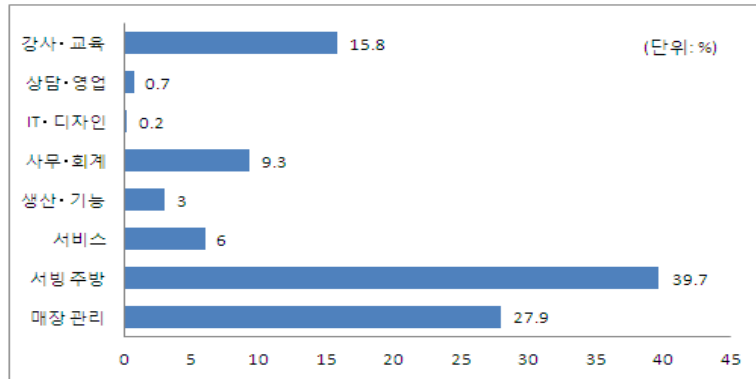
① 근로유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들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일의 종류를 묶어 8가지로 범주화하여 조사하였고⁸⁾, 이를 조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음식점, 주방, 카페 등에서의 서빙이나 주방 일에서 가장 높은 비율(39.7%)을 보이고, 편의점이나 마트, 소매 판매점이나 서비스점의 매장관리 일의 비율(27.9%)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보습학원 등에서의 강사와 개인지도·과외 일의 비율(15.8%)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8) 실태조사 설문지에 다음과 같은 8가지 업·직종 보기가 제시되었다(문23-2)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강사·교육
(11) 편의점	(21) 음식점/ 레스토랑	(31) 영화·공연·전시	(41) 공사현장	(51) 사무보조	(61) 사이트운영관리	(71) 고객상담	(81) 입사보습학원
(12) 대형마트/소형마트/이마트/백화점	(22) 패밀리레스토랑	(32) 테마파크·레포츠	(42) 전단배포	(52) 자료입력·문서작성	(62) 소핑몰·오픈마켓	(72) 전화주문·접수	(82) 외국어학원
(13) PC방/DVD방/노래방/민화방	(23) 뷔페·연회장	(33) 숙박·호텔·리조트	(43) 주유·세차	(53) 경라·회계·총무	(63) 프로그래머	(73) 아웃바운드 TM	(83) 방문·학습지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24) 커피전문점	(34) 안내데스크·매표	(44) 청소·이화	(54) 비서·전화응대	(64) 컴퓨터 A/S	(74) 설문조사·리서치	(84) 개인지도·과외
(15) 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사무용품/음품/가구·장구·소품 매장	(25) 패스트푸드	(35) 나레이터 모델/피팅 모델	(45) 배달/운전	(55) 번역통역	(65) 웹디자인	(75) 영업·마케팅	(85) 컴퓨터IT
(16) 청과·육산·수산물·농산물·판매장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36) 보조출연자/사진·촬영보조	(46) 운반·이사/택시·서비스 택배	(56) 편집·교정·교열	(66) 그래픽·일러스트	(76) 기타 상담·영업	(86) 자격증·기술
(17) 찜질방·사우나	(27) 일반주점·호프	(37) 보안·경호·경비	(47) 제조·가공/포장·조립	(57) 복사·출력·제본	(67) 편집·신입·디자인	(77) 기타	(87) 예제능·레포츠
(18) 독서·살고시원	(28) 카페	(38) 여행가이드	(48) 전기·공사·설치/기계·정비·수리	(58) 실험·연구·보조	(68) CAD·CAM		(88) 유아유치원
(19) 도서·DVD·대여점	(29) 푸드코트/급식	(39) 헤어·피부·미용	(49) 물류·창고·관리	(59) 공공기관	(69) 기타·IT·디자인		(89) 기타 강사·교육
(20) 기타 매장	(30) 조리·주방보조	(40) 기타 서비스	(50) 기타 생산·기능	(60) 기타 사무			



【그림 13】 재학 중 근로 유형

② 일자리 근속기간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일의 근속기간을 살펴본 결과 현재 하는 일은 평균 6.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일의 종류에 따라 근속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수가 극히 적은 IT·디자인 업종과 상담·영업 일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생산·기능의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1.1개월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는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이 평균 8.1개월로 길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대학생, 특히 저학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빙·주방(5.9개월), 매장관리의 일(5.8개월)은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근속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3 개월 미만	3~6 개월 미만	6~9 개월 미만	9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평균	
전체	602	-					6.5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종류	매장관리	169	23.1	37.3	20.7	5.9	13.0	5.8
	서빙·주방	248	24.6	33.9	25.4	4.8	11.3	5.9
	서비스	36	25.0	38.9	16.7	5.6	13.9	6.8
	생산·기능	19	26.3	47.4	0.0	5.3	21.1	11.1
	사무·회계	56	23.2	42.9	17.9	5.4	10.7	5.7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12.0
	상담·영업	4	0.0	25.0	0.0	0.0	75.0	25.2
	강사교육	98	12.2	29.6	15.3	12.2	30.6	8.1

③ 주당 평균 근로시간

〈표 6〉에 제시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학기 중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4.1시간이며, 주당 5~10시간(24.4%)과 10~15시간(22.3%) 정도 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27.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는 일의 종류별로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해당 사례수가 극히 적은 IT디자인과 상담영업 직종을 제외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일은 서빙·주방으로, 이 일을 하는 학생들은 주당 평균 16.2시간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매장관리와 서비스직의 근로시간도 전체 평균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은 가장 짧은 주당 8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 현재 하는 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5 시간 미만	5~10 시간 미만	10~15 시간 미만	15~20 시간 미만	20~25 시간 미만	25~30 시간 미만	30 시간 이상	평균
전 체		602	13.3	24.4	22.3	13.1	14.0	4.2	8.8	14.1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7.7	23.2	23.8	20.2	14.9	3.0	7.1	14.7
	서빙·주방	239	7.1	18.4	26.8	10.9	19.7	5.4	11.7	16.2
	서비스	36	2.8	41.7	13.9	16.7	5.6	5.6	13.9	14.8
	생산·기능	18	16.7	27.8	16.7	11.1	16.7	0.0	11.1	13.1
	사무·회계	56	12.5	25.0	25.0	10.7	8.9	5.4	12.5	14.5
	IT·디자인	1	0.0	0.0	0.0	100.0	0.0	0.0	0.0	16.0
	상담·영업	4	0.0	0.0	25.0	50.0	0.0	0.0	25.0	21.0
	강사교육	95	42.1	34.7	9.5	5.3	4.2	2.1	2.1	8.0

④ 월평균 소득

재학 중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을 하고 얻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본 결과, 일을 하는 학생 전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30~50만원미만 정도의 소득을 얻는 비율(3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 중 근로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생활비 보조나 용돈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수준이며, 절대 금액이 높아진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로 활동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의 종류별로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큰 차이는 없으나 해당 사례수가 극히 적은 IT디자인과 상담영업 직종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강사교육의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이 월평균 43.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빙·주방의 일이 월평균 40.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주당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분석결과를 고려해보면,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은 적은 근로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서빙·주방의 일이나 매장관리, 서비스 직종의 일은 시간 대비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과외의 평균 시급이 가장 높고, 편의점이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관련 실태조사⁹⁾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대학생들이 장시간 근로활동을 하는 매장관리, 서빙·주방, 서비스 직종에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단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당대우 등 근로보호가 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7 현재 하는 일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602	1.8	5.8	24.9	39.5	19.4	6.0	2.5	38.7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1.8	6.5	30.4	39.3	16.1	4.2	1.8	34.7
	서빙·주방	239	1.7	3.8	24.3	41.0	20.1	6.3	2.9	40.4
	서비스	36	5.6	11.1	33.3	30.6	8.3	5.6	5.6	37.3
	생산·기능	18	5.6	5.6	27.8	27.8	27.8	5.6	0.0	37.1
	사무·회계	56	1.8	7.1	23.2	37.5	25.0	3.6	1.8	37.7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0.0	0.0	50.0
	상담·영업	4	0.0	0.0	25.0	25.0	25.0	0.0	25.0	75.0
	강사·교육	95	1.1	7.4	11.6	42.1	23.2	12.6	2.1	43.2

⑤ 학업과의 병행의 어려움 정도

재학 중 근로현황에 이어 여기에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갖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어려움의 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일하는 대학생의 47.9%가 학업과의 병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 2011년 대구·경북 청년고용토론회 준비단, 「2011년 대구·경북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1.5, p.6

근로 유형별로 학업과의 병행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육체노동의 강도가 다른 일들에 비해 강한 생산기능 직종의 일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61.1%가 학업과의 병행이 어려우며, 그 중에서도 27.8%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과는 달리 주로 평일 주간 시간대에 사무보조의 일을 하는 사무·회계의 경우 다른 일들에 비해 전혀 어렵지 않다는 비율(19.6%)이 높게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하는 매장관리나 서빙·주방, 서비스 직종의 경우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일과 학업과의 병행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학 중 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학업을 지속하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생산기능의 일을 하는 학생들과 서빙·주방 등의 일을 하는 학생들의 근로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학업과 병행 가능한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제공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현재 하는 일과 학업과의 병행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평균
전 체		602	8.1	27.2	16.8	35.9	12.0	3.16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6.5	23.8	20.8	35.7	13.1	3.25
	서빙·주방	239	6.7	23.4	16.7	39.7	13.4	3.30
	서비스	36	5.6	33.3	13.9	36.1	11.1	3.14
	생산·기능	18	11.1	0.0	27.8	33.3	27.8	3.67
	사무·회계	56	19.6	33.9	12.5	26.8	7.1	2.68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5.00
	상담·영업	4	25.0	0.0	0.0	75.0	0.0	3.25
	강사·교육	95	7.4	41.1	10.5	32.6	8.4	2.94

(3) 재학 중 근로에 관한 인식

① 재학 중 일 경험의 필요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대상자에게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분석결과 <표 9>와 같다. 현재 근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재학 중 근로 경험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9.0%로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66.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재학 중 일 경험 필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일의 종류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재학 중 근로 현황을 보면, 근로활동의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 대체로 ‘단순·노무, 단기간 근속, 저임금’의 근로이기 때문에 학업 또는 진로설정과의 연계,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에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 경험의 필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을 하는 대학생들은 그 일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재학 중 근로 경험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과의 병행이 가능한 선에서 적절한 일 경험 또한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9 재학 중 근로 경험의 필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하지 않는다	필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 하다	평균
전 체		2,417	1.4	9.2	19.8	54.5	15.1	3.7
근로 여부	근로	602	1.3	6.3	13.4	61.5	17.5	3.8
	비근로	1,815	1.5	10.1	21.9	52.2	14.3	3.6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0.6	6.5	17.3	59.5	16.1	3.8
	서빙·주방	239	1.7	7.1	10.9	62.8	17.6	3.8
	서비스	36	0.0	5.6	11.1	66.7	16.7	3.9
	생산·기능	18	0.0	0.0	22.2	55.6	22.2	4.0
	사무·회계	56	5.4	7.1	16.1	50.0	21.4	3.7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5.0
	상담·영업	4	0.0	25.0	0.0	50.0	25.0	3.7
	강사·교육	95	0.0	5.3	11.6	67.4	15.8	3.9

② 재학 중 일 경험과 능력개발의 관련성

재학 중 근로의 필요도에 이어 재학 중 일 경험이 자신의 능력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50.6%)가 재학 중 일 경험이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56.6%)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례 수가 적은 IT·디자인 분야를 제외하면, 재학 중 일 경험과 능력개발에 도움 정도는 보통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재학 중 일 경험과 능력개발의 관련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 된다	평균
전 체		2,417	5.0	16.7	27.7	40.6	10.0	3.3
근로 여부	근로	602	5.1	15.6	22.6	45.5	11.1	3.4
	비근로	1815	4.9	17.1	29.4	39.0	9.6	3.3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3.6	16.1	28.6	42.9	8.9	3.3
	서빙·주방	239	6.3	15.1	20.1	46.4	12.1	3.4
	서비스	36	2.8	22.2	16.7	47.2	11.1	3.4
	생산·기능	18	11.1	22.2	16.7	33.3	16.7	3.2
	사무·회계	56	5.4	17.9	26.8	35.7	14.3	3.3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5.0
	상담·영업	4	25.0	0.0	25.0	50.0	0.0	3.0
	강사·교육	95	4.2	12.6	18.9	53.7	10.5	3.5

③ 재학 중 일 경험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정도

재학 중 근로의 필요도 그리고 능력개발과의 관련성에 이어 재학 중 근로 경험이 향후 직업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31.7%가 재학 중 일 경험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와는 달리 25.3%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로활동 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45.6%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였고,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긍정(35.6%)의 응답과 부정(29.2%)의 응답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는 일의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빙·주방의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4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기능과 사무회계의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율(각각 33.4%, 33.9%)이 다른 직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재학 중 일 경험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평균
전 체		2,417	6.0	19.3	43.0	29.5	2.2	3.0
근로 여부	근로	602	7.8	21.4	35.2	33.4	2.2	3.0
	비근로	1,815	5.3	18.6	45.6	28.2	2.3	3.0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7.1	17.9	45.2	28.6	1.2	2.9
	서빙·주방	239	7.9	22.6	28.0	38.9	2.5	3.0
	서비스	36	0.0	19.4	44.4	30.6	5.6	3.2
	생산·기능	18	16.7	16.7	38.9	27.8	0.0	2.7
	사무·회계	56	12.5	21.4	35.7	28.6	1.8	2.8
	IT·디자인	1	0.0	0.0	0.0	100.0	0.0	4.0
	상담·영업	4	25.0	50.0	0.0	25.0	0.0	2.2
	강사·교육	95	7.4	24.2	32.6	33.7	2.1	2.9

4) 취업 준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9월 현재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0.0%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0.9%p 상승한 반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p 낮아진 39.7%이고, 실업률에 있어서도 2012년 9월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데 반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6.7%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2004년 55.7%였던 청년 고용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의 고용률(51.5%)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으며¹⁰⁾,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는 전체 고용 여건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되어 청년층의 취업난은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목 실업률 이면에 있는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화, 즉 장기화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취업기회 및 취업 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추이가 낮아지지 않아¹¹⁾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고용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10)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18~29세 청년층 고용률: 2004(55.7%), 2005(55.5%), 2006(54.5%), 2007(54.1%), 2008(53.2%), 2009(52.0%), 2010(51.9%), 2011(51.9%)

11)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는 2009년 1/4분기 이후 멈추었으나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음(설윤, 이소영, 변양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 p.2, 2012.8.6, 한국경제연구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은 학력 인플레이션, 즉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학력 노동인력의 과잉공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공급인력과 수요의 미스매칭, 높아진 구직자의 눈높이, ‘좋은 일자리(decent job)’ 감소 등 복잡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취업 경쟁으로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의 채용기준에 부합하고자 구직자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를 일컫는 소위 ‘스펙¹²⁾’을 쌓기 위한 취업준비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취업정보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51.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으로 연평균 279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헤럴드경제, 2011.12.5)¹³⁾.

이상의 내용과 같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취업 경쟁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펙 쌓기 등의 취업준비 노력 등을 분석하였다.

① 스펙 쌓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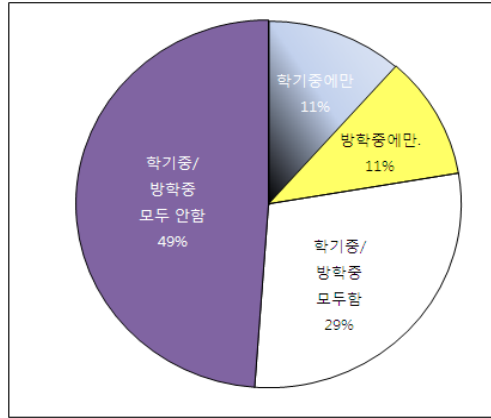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는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에서 다양한 채용요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일명 구직자들에게 취업 준비의 요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 요건¹⁴⁾을 갖추하고자 대학생활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스펙(취업을 위한 자격이력) 쌓기에 할애하고 있으며 과도한 스펙 경쟁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세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의 노력을 하고 있고, 스펙 쌓기 노력이 학기 중과 방학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51.1%)가 스펙 쌓기 노력을 하고 있으며, 29%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그리고 각 11% 정도는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만 스펙 쌓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스펙은 영어단어 Specification 의 준말로,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 신조어로 등록되어 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과 학점, 토익점수 외 영어 자격증, 그 외 관련 자격증들을 총칭하며, 구직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위키백과, 2012.8.14)

13) 잡코리아 「대학생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 보도 자료(2011.12.5)

14) 학벌, 학점, 외국어, 봉사활동, 공모전, 인턴, 성형을 묶어 일명 ‘취업 스펙 7종세트’ 라고 한다.



【그림 14】 스펙쌓기 노력 여부

대학생들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스펙을 쌓기 위해 어떠한 분야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1, 2학년은 방학보다 학기 중에 어학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3, 4학년들은 방학 중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무경력은 학년에 상관없이 학기 중 보다는 방학 중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모전의 경우 방학 중 보다 학기 중에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학년별 스펙쌓기 노력여부

(단위: %)

구 분	학기 중				방학 중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어학	11.7	17.9	26.7	34.2	8.8	19.5	31.5	40.1
전산	3.5	5.3	2.4	5.3	2.8	4.3	3.3	6.6
전공관련자격증	12.9	18.6	16.8	18.4	11.6	19.7	19.2	22.0
전공비관련자격증	3.1	4.8	3.6	6.3	3.2	4.6	6.0	6.3
봉사활동	8.7	8.3	9.0	11.8	8.4	10.6	11.4	13.8
단체활동	6.6	7.9	8.7	8.9	4.4	6.3	6.9	9.5
공모전준비	1.0	2.3	3.0	4.3	0.3	1.7	1.5	3.9
실무경력	0.6	0.9	0.6	2.6	0.8	1.7	2.1	5.3
취업관련아카데미	0.3	0.2	0.9	1.3	0.3	0.3	0.6	1.6

② 주당 할애 시간 및 소요 비용

앞서 스펙 쌓기의 노력이 학기 중 및 방학 중 양 기간에 채워나가는 비율이 높고, 요건에 따라 노력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구분 없이 대학생활의 상당한 시간이 스펙 쌓기에 할애되고 있고, 이는 스펙이라는 취업경쟁력 확보에 대학생들의 일상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에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어 제시된 주당 스펙 쌓기 할애 시간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스펙 쌓기를 위한 시간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기 중에는 어학(6.7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며, 방학 중에는 어학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9.5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기 중에 하기 어려웠던 실무경력에는 방학 중 주당 18.1시간을, 취업관련아카데미의 수강에도 방학 중 주당 8.9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학기 중/방학 중 여부에 따라 스펙 쌓기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방학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만큼 비용 또한 학기 중 보다 방학 중에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학, 전산, 자격증 등 항목의 비용은 학기 중보다 방학에 2배 이상 지출 된다. 한편 방학에 집중되는 취업관련아카데미 수강에 따른 평균 비용은 월평균 13만원으로 가장 부담 수준이 높은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외국어 학원비 및 취업 학원비의 물가지수가 등록금과 같은 고등교육 물가지수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정진후 의원실, 2012.8.23)¹⁵⁾을 고려해 볼 때 스펙 쌓기 노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어학과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취업아카데미 수강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정진후의원실 「이명박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 보고서」 (2012.8.23), p. 3 ‘고등교육, 기타교육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06	‘07	‘08	‘09	‘10	‘11	12년 2/4분기
고등교육	106.5	114.1	122.6	125.0	126.3	128.3	123.9
기타교육	101.9	105.7	110.4	114.0	116.4	120.8	125.0
외국어학원비	103.4	109.5	115.4	120.7	125.4	131.8	135.9
취업학원비	104.0	108.5	115.6	122.0	125.5	128.9	133.3

자료: 통계청(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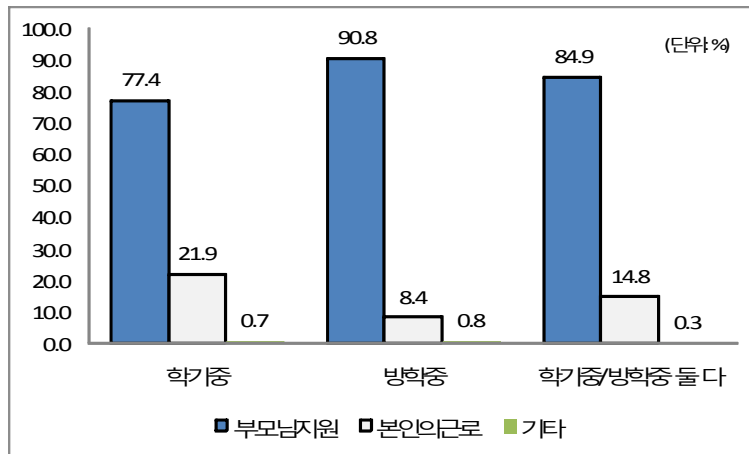
표 13

스펙 쌓기에 주당 할애하는 시간 및 월 평균 소요비용

(단위: 명, 시간, 만원)

구분		사례수	어학	전산	전공 관련 자격증	전공 비관련 자격증	봉사 활동	단체 활동	공모전 준비	실무 경력	취업관련 아카데미	평균
시간	학기 중	976	6.75	6.68	5.69	4.79	5.33	5.29	5.88	5.70	3.92	9.32
	방학 중	959	9.58	7.80	8.75	7.55	6.22	5.26	7.40	18.18	8.92	13.79
평균 비용	학기 중	976	5.12	3.70	4.89	5.52	0.24	1.12	1.71	1.57	1.67	5.72
	방학 중	959	12.31	7.81	9.37	8.82	0.76	1.60	3.49	2.58	13.08	12.74

스펙 쌓기의 비용의 조달방법을 분석결과,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스펙쌓기에 투자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응답자의 70%이상의 학생들이 스펙을 쌓는데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스펙쌓기 비용 조달 방법

5) 소비 및 여가활동

신제품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20대를 흔히 트렌드 세터(trend setter)로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연령층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외모 관리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고, 어학연수 및 유학 등을 통해 해외 경험을 한 비율이 높아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 외국의 음식문화에 개방적이며, 시간적 여유로 적극적 여가를 즐기며 취미, 운동, 자기계발 등의 활동에 시간과 돈을 투자(IG경제연구소, 2011)하는 소비 주도층으로 설명되는 반면, 비자발적으로 경제적 독립이 유예되거나 저임금의 소득으로 기본적인 문화생활도 할 수 없는 취약 연령층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소비생활 또한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과 가중되고 있는 취업경쟁, 그에 따르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의 증가 및 부담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생계비 마련 및 유지를 위한 시간의 소비와 금전 소비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청년유니온에서 최저임금 또는 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이 월소득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¹⁶⁾,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 2,277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생활비 조사 결과, 자취 및 하숙,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은 한 달 평균 소비지출비(41.9만원)의 78%(32.2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학점과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그리고 생활비와 등록금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시간의 제약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에도 변화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고¹⁷⁾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소비지출과 여가활동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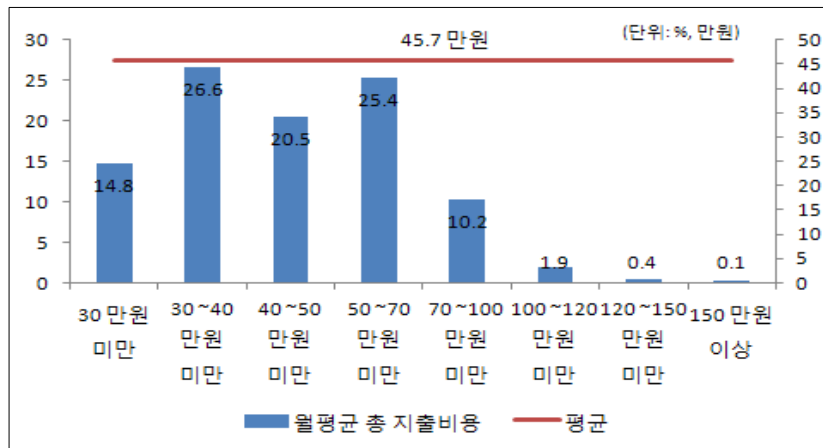
(1) 소비지출

① 월평균 지출비용

대학 재학생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그림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45.7만원이며, 전체의 26.6%가 30~40만원, 25.4%가 50~70만원, 20.5%가 40~5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청년유니온 '최저임금과 청년생활비 조사 분석표', 청년유니온 내부 자료

17) 연합뉴스 '취업알바부담에 술 안먹는 대학생들', 2011.10.23일자



【그림 16】 월평균 총 지출비용

②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여부 및 지출비중

생활비 지출은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 14>에서는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여부를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과 비동거 학생으로 나누어 각각을 비교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은 주거비,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통신비, 피복비 항목의 비지출률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높으며, 교통비의 경우 지출률이 비동거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류와 담배소비, 그리고 보건의료비 항목에 있어서는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지출률이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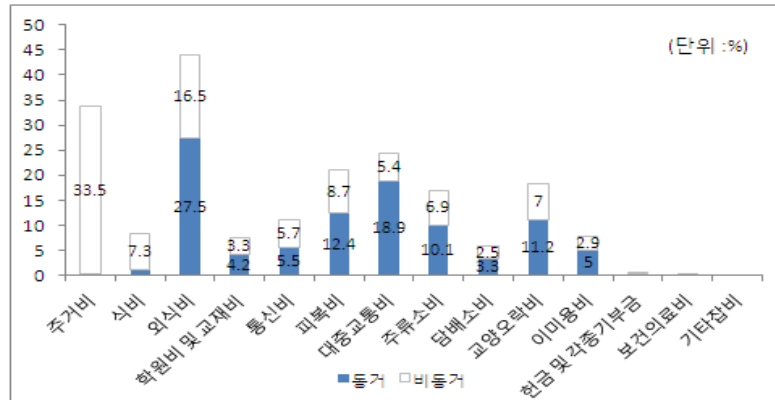
표 14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여부

(단위: 명, %)

지출항목	구분	지출여부	
		지출(%)	비지출 (%)
전체 사례수		2,417 (100)	
주거비	동거	12 (0.8)	1,533 (99.2)
	비동거	821 (94.2)	51 (5.8)
식비	동거	76 (4.9)	1469 (95.1)
	비동거	366 (42.0)	506 (58.0)
외식비	동거	1,508 (97.6)	37 (2.4)
	비동거	841 (96.4)	3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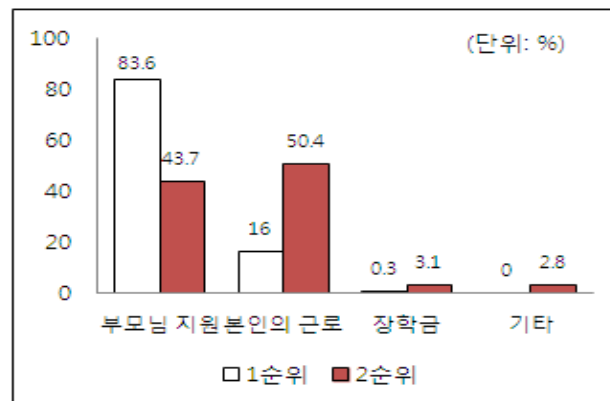
지출항목	구분	지출여부	
		지출(%)	비지출 (%)
학원비 및 교재비	동거	435 (28.2)	1,110 (71.8)
	비동거	292 (33.5)	580 (66.5)
통신비	동거	553 (35.8)	992 (64.2)
	비동거	461 (52.9)	441 (47.1)
피복비	동거	1,203 (77.9)	342 (22.1)
	비동거	726 (83.3)	146 (16.7)
대중교통비	동거	1,463 (94.7)	82 (5.3)
	비동거	704 (80.7)	168 (19.3)
주류소비	동거	1,089 (70.5)	456 (29.5)
	비동거	653 (74.9)	219 (25.1)
담배소비	동거	401 (26.0)	1,144 (74.0)
	비동거	263 (30.2)	609 (69.8)
교양오락비	동거	1,415 (91.6)	130 (59.6)
	비동거	784 (89.9)	88(10.1)
이미용비	동거	1,210 (78.3)	335 (21.7)
	비동거	690 (79.1)	182 (20.9)
현금 및 각종기부금	동거	77 (5.0)	1,468 (95.0)
	비동거	30 (3.4)	842 (96.6)
보건의료비	동거	54 (3.5)	1491 (96.5)
	비동거	67 (7.7)	805 (92.3)
기타잡비	동거	15 (1.0)	1,530 (99.0)
	비동거	6 (0.7)	866 (99.3)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률 뿐만 아니라 지출금액과 전체 소비지출 금액에서 각 소비항목의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을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나누어 비교해보면, [그림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서 살펴본 지출률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소비항목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거비의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 금액의 33.5%로 절대적인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의 27.5%를 외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들에서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이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비동거 하는 학생들의 소비지출이 생계유지를 위한 항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지출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최근 대학생들의 경제적 복지 및 생활복지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7】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비중

다음에서는 이상과 같이 지출하는 생활비를 어떠한 경로로 조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인 83.6%가 부모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본인이 근로(50.4%)를 하며, 본인 근로로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경우 (16.0%)도 충당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부모님의 지원(43.7%)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생활비 조달이 앞서 살펴본 등록금에 비해 스스로가 조달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의존하는 대학생들이 절대 다수임을 나타내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단순히 등록금 하나에만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18】 생활비 지출 조달 방법

(2) 주된 여가활동 현황

① 여가활동 종류¹⁸⁾

대학 재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준비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노동이나 직무뿐만 아니라 일체의 용무나 책임에서 벗어난 개인의 자유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활동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8가지로 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우선순위의 3가지를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다.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주된 여가활동은 인터넷 게임이나 검색, 쇼핑/외식, 독서, 음주 등의 취미·오락활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TV시청이나 음악감상, 산책 등 휴식활동이 67.9%, 전시·공연·영화관람 등의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44.9%로 조사되었다.

표 15 여가활동의 종류

구분	사례수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 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1+2+3 순위	2,417	44.9	5.1	4.6	17.8	3.0	88.2	67.9	10.3
1순위	2,417	13.4	1.4	1.1	7.0	0.3	44.8	30.0	1.8
2순위	2,366	15.6	2.1	1.4	5.1	1.3	47.3	23.3	3.8
3순위	2,158	20.7	2.0	2.4	6.5	1.6	44.2	16.8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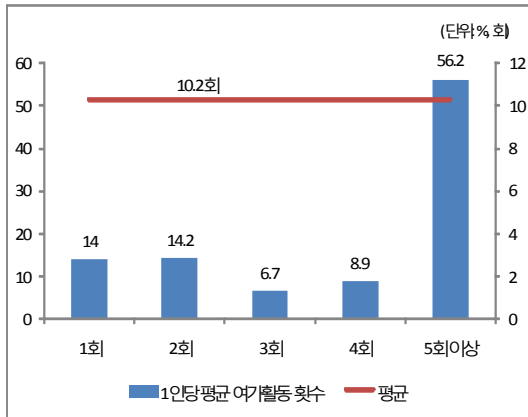
② 여가활동 횟수 및 비용

이러한 여가활동은 월평균 10회 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게임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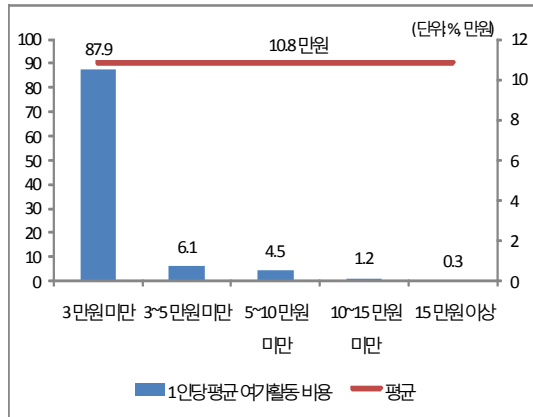
18) <보기 : 여가활동 유형>: 실태조사 설문지 문27)

A. 문화예술 관람활동	B. 문화예술 참여활동	C. 스포츠 관람활동	D. 스포츠 참여활동
(1)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예술공연, 연극, 무용, 연예공연 관람 (2) 영화보기	(3) 문학, 서예, 문예,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무용/춤 배우기 참여 (4) 사진촬영	(5) 스포츠경기관람	(6) 스포츠경기/운동 (구기운동, 생활체육운동 등) 참여
E. 관광활동	F. 취미 오락활동	G. 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7) 문화유적, 자연풍경 관람, 산림욕, 국내캠핑 (8) 해외여행 (9) 테마파크/놀이공원, 식물원, 동물원가기	(10) 요리/생활공예/ 애완동물 돌보기 (11) 노래방가기 (12) 인터넷 게임, 인터넷 검색 (13) 쇼핑/외식 (14) 음주 (15) 독서/만화책보기 (16)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17) 휴식활동(산책, 목욕/ 사우나/찜질방, 낮잠, TV시청,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등)	(18) 사회봉사활동 (19) 종교활동 (20) 클럽/나이트/디스코장 가기 (21) 동호회 모임/활동 (22) 기타(구체적으로:)

취미·오락활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주된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평균 10.8만원이고, 대부분 3만원 미만(87.9%)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취미·오락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가활동에 소비되는 비용도 많지 않은 것은 경제적 제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림 19】 평균 여가활동 횟수



【그림 20】 평균 여가활동 비용

③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

주된 여가활동이 대학 재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향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67.7%)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활동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앞서 대학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의 여가활동으로 나타난 취미·오락활동(67.1%)과 휴식활동(66.8%)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낮은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활동들은 대체로 참여 활동(문화예술참여활동: 76.6%, 관광활동: 75.0%, 스포츠참여활동: 73.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재학생들의 주된 여가활동은 자발적인 선택이나 만족에 의한 활동이기보다는 여건에 따른 것이고, 보다 여가활동의 만족을 높여 대학생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중심의 여가활동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일상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상 생활에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균
전 체		2,417	0.1	1.8	30.3	55.8	12.0	3.78
주된 여가 활동 (1+2+ 3순위)	A. 문화 예술 관람 활동	1,085	0.1	2.0	27.7	55.7	14.5	3.82
	B. 문화 예술 참여 활동	124	0.0	0.8	22.6	62.1	14.5	3.90
	C. 스포츠 관람 활동	112	0.0	1.8	29.5	60.7	8.0	3.75
	D. 스포츠 참여 활동	431	0.0	0.9	25.5	59.6	13.9	3.87
	E. 관광 활동	72	0.0	1.4	23.6	56.9	18.1	3.92
	F. 취미 오락 활동	2,132	0.1	1.8	31.0	55.8	11.3	3.76
	G. 휴식 활동	1,640	0.0	1.3	31.9	54.8	12.0	3.77
	H. 사회 및 기타 활동	248	0.4	2.4	27.4	53.2	16.5	3.83

3. 결 론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이들을 둘러싼 5가지(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준비, 소비 및 여가활동)의 현안 이슈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실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이슈에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의 생활실태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모든 경제적 비용(등록금, 생활비 및 용돈, 취업준비비용 등)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문제가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어 있으며, 공식적 고등교육비용이 교육 수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생활비 및 용돈, 사교육비 등의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정수준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대응은 통합적이기 보다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부처의 단일 이슈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등록금 인상에 따른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거문제는 국토해양부, 취업문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금, 주거, 취업의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의 부담, 즉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서민가계의 자녀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의 통합적인 관계부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거실태 분석 결과에서,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6.1%이고 이들의 52.3%는 기숙사, 33.1%는 월세 자취하고 있으며, 월세자취자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평균 30.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주거형태가 월세자취인 학생들은 평균보다 상회하는 월평균 40.3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에 비해 2배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재학 학교의 지리적 위치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나,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함께 주거공간의 공급여건, 즉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복지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구조 하에 있음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의 주거 및 생활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수도권 학생들과 도 지역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와 유형,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체감정도는 상이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생 주거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서비스의 방향이 기숙사 공급 및 비용 절감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이 마련이 되었다면, 이 틀 안에서 학생들의 필요 욕구를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안들의 발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학소재지규모, 즉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등록금 부담 실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대비 17%수준이다. 82.7% 학생이 부모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7.1%의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부채를 지고 있고, 이들 중 81.7%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은 4년제 대학 학생들보다는 2/3년제 대학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요 수요층이 되며, 등록금 대출과 함께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규모와 기회의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절대 금액이 높아있는 대학 등록금은 정부의 인상률 관리로 최근 2~3년 동안은 물가상승률을 하회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언제든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다면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재학 중 근로 실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근로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및 용돈 충당(85.7%)에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대학생은 전체 24.9%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서빙/주방일(39.7%)과 매장관리(27.9%)이며, 평균 6.5개월 정도 근속에 주당 14.1시간 정도 근로를 통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47.9%가 학업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79.0%가 근로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0.6%는 재학 중 일 경험이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근로 대학생 중 56.6%가 재학 중 일 경험이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단순노무일로 인해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31.7%로 그다지 높지 않다. 재학 중 근로가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노동에 그치지 않고 할애되는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는 생애 근로 경험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공과 연계되는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가 학교를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의 발굴은 학교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지원 사업 안착을 위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대상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할 때 초기 효과가 클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재학 중 근로가 단기간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 일시적 노동이 아닌, 근로 생애 관점에서의 재학 중 근로에 의미를 다시 재설정하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그 과정에서 자립의지와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취업준비 관련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특히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저학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조사 대상자의 51%가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학에는 학기 중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펙 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취업아카데미 수강도 늘어난다. 스펙 쌓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학년들의 적지 않은 시간 할애와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펙 쌓기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도전정신과 대인관계 능력을 구직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 항목으로 꼽는다(이건남, 2012)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대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스펙 쌓기는 그다지 유용한 취업 요건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소비 및 여가활동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은 45.7만원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소비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금액으로만 본다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총 소비지출금액 중 주거비와 식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항목의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적 생활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다. 학비와 생활비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필요 금액을 부모에게 의존하다보니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가 요구 되는 여가활동은 3만원 미만의 저비용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취마오락, 예컨대 인터넷 게임이나 노래방, 독서/만화, 쇼핑/외식 등의 활동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취마오락이나 휴식 활동이지만, 대학생들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활동은 문화활동, 관광, 스포츠참여 등 대체로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에게까지 연장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2



후기청소년 정의와 정책과제 : 대학재학생을 중심으로

조 혜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후기청소년 정의와 정책과제 : 대학재학생을 중심으로¹⁾

1. 들어가며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세이며 유엔의 청소년 연령 범주도 15세부터 24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존의 청소년 정책 연구는 주로 13~18세의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온 반면, 이 연령대 이후의 청소년세대 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연구는 수행되지 않아 왔으며, 그 결과 이들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제 개발도 미흡하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20대 초반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여겨진다.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70% 이상이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온 청소년세대들은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기청소년세대가 처한 미시적, 거시적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이 되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족 사회화 과정,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열풍, 무한 글로벌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 과업이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명문대 대학생들의 연속되는 자살 문제,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휴학 풍토²⁾, 과소비,

1) 이 발표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I: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히며, 인용을 위해서는 원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2) 2011년의 경우 4년제 대학생 중 24.3%(504,599명)가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임(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chedi.re.kr>).

20대의 독립심 결여(20대 어린이라는 신조어 등장)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대학진학률의 급증은 대학생 내부에서의 이슈 및 계층 분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등록금과 거주비용, 기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휴학을 하는 학생 집단이 등장하는 반면,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추후에 활용가능한 문화자본 확충을 위해 해외 연수와 어학 연수 등을 떠나는 집단도 있다. 이러한 대학생 집단 내의 계층 분화는 일류대와 비일류대,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양극화로 나타난다. 대학 간 위계 분화와 함께 대학 내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일보가 2011년 11월 27~29일 설문조사 대행업체 서베이몽키를 통해 전국의 20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7%가 “20대 내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답했다(한국일보, 2012.01.04).

고용이나 진로와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절한 근로 여건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취업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을 전전하고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지도 않는 NEET 상태로 지내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을 졸업한 15~34세 인구 중에 ‘청년 니트(NEET)족’이 2003년 75만1000명에서 2010년 99만6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니트족의 증가는 가중되는 취업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무관심한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간섭이나 태도, 지속되는 지원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한국경제, 2012.02.20).

이처럼 후기청소년 세대 내부 및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중등교육기간이 끝난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나치게 진로 및 취업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20대의 관심사도 구직 및 경제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부재는 가치관 정립, 위기 대처 능력, 자립심 함양, 공동체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립 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2년에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후기청소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에는 대학재학 여부, 재학 중인 대학특성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관심사별 다양한 하위범주가 존재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비재학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후기청소년세대 정의와 개념

후기청소년기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나 정책내용, 또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나 정책 대상으로 사용해 온 관행 등을 살펴본다면,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 후반까지로 연장시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춘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선구자였던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은 청소년기(사춘기, adolescence)를 14에서 24세로 보고 있다(Arnett, 2006). 심리학 분야 발달이론가의 대표적 학자인 설리반(Sullivan)은 유아기부터 후기청소년까지 6단계로 상호작용 욕구를 설명했는데 그 중 후기청소년기는 17/18세부터 20대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는 성인사회로 통합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로 초기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혼란이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조아미, 2007, pp. 104-105). 한편, 정옥분(2008)은 청년발달의 이해에서 청년기를 연령기준으로 12-13세부터 24-25세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심리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청년 초기는 11세에서 14세까지로 대략 중학교 시기, 중기는 15세에서 18세로 고등학교 시기, 후기는 18세에서 20대 초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행에 기반하여 청소년학 분야에서도 청소년기를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에 따라 초기청소년기(9-14세), 중기청소년기(15-18세), 후기청소년기(19-24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오치선·김진화, 1999; 최훈·진영재, 2010).

정책적으로도 청소년기의 연령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UN과 월드뱅크, OECD 등에서 청소년 연령대는 15세부터 24세로 보고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청소년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영어권에서는 adolescents, youth, young people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연령대도 다르게 구분 짓는다. UN은 adolescents를 10-19세로, youth는 15-24세로, young people은 10-24세로 보고 있다(Asia-Pacific Interagency Group on Youth, 2011).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UN의 청소년 연령대는 youth 연령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청소년기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EU Youth Report에 따르면, 청소년(youth)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질 수 없으며, 쉽게 정의되지도 않는다. 청소년은 “의존적인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기”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몇 살에 해당되는 시기인가를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회마다 성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 기간,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부여가 성인기 진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컨대 EU에서 투표권은 오스트리아(16세)를 제외하고는 18세부터이지만, 피선거권은 18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다. 또한 성인기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시기와 여겨진다. 하지만 학업의 연장 및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EU의 청소년보고서에서 연령 대상은 15세부터 29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한편 노동이나 진로 관련 연구에서는 15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연령대를 청년세대로 개념 정의하기도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10).

또한 국가별로, 정책 내용 별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 범위는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유럽국가와 그 외의 국가에서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 연령대를 제시한다.

표 II-1 청소년정책의 주요 표적 집단으로서 청소년의 정책적 범주

청소년정책 대상	해당국가	
	유럽국가	그 외 국가
0세(출생) ~ 25/30세 이상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29세 미만)	일본(40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 25세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한국(9~24세)
11/13세 ~ 18/25세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인도(13~35세)
중등교육 말 ~ 25/30세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15~25세), 필리핀(15~30세), 뉴질랜드(15~24세), 싱가포르(15~29세)

출처: IARD (2001), p. 57; 이광호(2012), p. 36.

후기청소년 개념의 도입은 현대사회의 성장 조건이 변화하였음을 반영한다. 예전에는 20대를 젊은 성인(young adult)의 연령집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교육의 종료와 직업세계로의 진출과 같은 경제적 자립, 결혼 등 사회적 자립을 들었다. 과거에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루어졌지만 근래에는 자립 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이전되는 추세이다. 교육기간 연장과 직업 획득, 결혼이 이후 연령대로 지연되면서 후기청소년

개념은 청년의 청소년화 경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전상진·정주훈, 2006).

일부 연구자들은 20대 대학생을 ‘후기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학생의 현실이 사실상 청소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20대들은 단지 투표를 할 자격이 주어졌고 그들에 대한 호칭이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는 ‘청소년과 다른’ 삶의 위치에 있지 않다. 이들은 사회적 진출을 유예당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오찬호, 2010). 결국,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구직연령과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20대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 환경적 특성을 공유하는 연령집단으로서 세대 개념을 적용하여 후기청소년세대를 바라보고자 한다. 세대는 연령이나 생애단계를 의미하기도 하고(20대 청소년 세대, 노인세대 등), 부모-자녀 관계를 가리키기도 하며(노부모-성인자녀 등),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전후세대, 4·19세대 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박재홍, 2002).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동일한 정체성이 체화된 집단, 즉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공동된 의미 지평(common horizon of meaning)’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세대는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의 특성을 가진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오찬호, 2009).

후기청소년세대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연장·분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청소년기본법 상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대를 고려하여 후기청소년 세대를 19세에서 24세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상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대가 9세부터 24세이며, 기존에 청소년정책이 주로 중고등학교 연령대인 13-18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령대에 보다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두어야 함을 자각하고 이들의 실태 파악 및 관련 정책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3. 후기청소년들의 현실: 면접조사 주요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설문조사 실시 후 일반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후기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 등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후기청소년 세대가 당면한 현안 문제들인 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취업 준비, 소비지출 및 여가관련 실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았다. 면접조사에서는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인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안 이슈들에 대한 의미와 의식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후기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로서 자신들의 정체성,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진입하고 생활하면서 얻는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부여, 자립에 대한 주관적 개념 정의 등 사회 현안들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주변의 환경에 대해 어떠한 개념화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추이 파악과 더불어 개별 참여자로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생각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즉, 구체화된 일반화에 대한 개별 참여자의 해석과 의미를 보다 구체적인 언술 자료를 통해 심화시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심층면접에서는 후기청소년세대가 당면한 주요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취업 준비, 소비지출 및 여가 관련 개별 행위자들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석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현재의 관심사, 미래에 대한 전망,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만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이들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들어보하고자 하였다.

표 1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접참여자 섭외과정	설문조사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면접 참가 의사 확인	
면접참여자 수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2/3년제 대학생 30명	
면접참여자 특성 개요	학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 세대	
면접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FGI / 개별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면접 시간 및 횟수	1시간 정도 2회 내외	
면접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면접자	면접조사요원, 연구진	

2) 참가자 개요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 참가한 후기청소년들 중 면접 조사에 응할 의향을 파악한 후 실시하였다.

면접 참가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 중 서울, 수도권, 지방의 지역별 참가자 규모를 안배하였고 설계 과정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 각각 10명씩 그리고 4년제와 2/3년제 대학생 규모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였다. 하지만 면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시간적, 물리적 여건과 심경 변화로 참가에 응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결국 4년제 대학생과 2/3년제 대학생 비율을 고루 맞출 수 없었다. 특히 근래에 사회 신뢰가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낯선 전화를 받고 선뜻 면접 장소에 나오기에 두려움을 느낀 청소년도 있었으며, 실제로 부모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의 의지로 면접 장소에 나온 사례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4년제 재학생 22명과 2/3년제 대학 재학생 8명이 참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14명 참여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13명, 수도권 지역이 9명, 지방 소재 대학생 8명이 참가하였다.

3) 현안 관련 인식

(1) 대학생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먼저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하여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가이드에 의해 움직이는 생활이었지만 현재 대학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자신의 목표와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여전히 부모에의 의존이 지속되고 있어 때로는 청소년으로, 때로는 성인에 더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며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오다 대학 입학 후에는 목표를 상실하고 생애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학교까지의 일상은 자유가 없고 부모의 보호와 관리, 간섭 하에 살아오던 청소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자유를 즐기기도 하지만 자기의 일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후기청소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경제적 문제,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 문제, 근로 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긴다. 또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서 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먼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상대적 위치, 개인 간 격차, 구직 가능성 격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특히 취업 관련 준비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지만 마땅한 상담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대화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주변 친구나 선배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주거 관련 실태 및 의식

면접 참가자들 중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와 분거를 해야 하며, 주거 형태로는 기숙사, 월세, 전세,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와 분거하여 거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기숙사이지만 학교에 따라 기숙사가 없거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민자 기숙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월세를 선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전세나 고시원에 거주하기도 한다. 주거비용은 대부분 부모의 부담으로 충당되며, 주거비용을 해결하는 것은 등록금 마련과 함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전세임대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면접 참가자들 중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3) 등록금에 대한 인식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등록금 액수가 한 학기 동안 제공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 시설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는 액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전문대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등록금이 전공 관련 수업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학자금 대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의 등록금 납부는 해소되지만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지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일단 만족감을 갖는다. 학교 장학금 지원액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소액 수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지급액수의 선정과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이 필요하다고 반응한다.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교, 정부 등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제한을 두어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을 한다. 또한 등록금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 공개와 함께 장학금 혜택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등록금 혜택과 관련하여 기업 등에서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시키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혜택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한다.

(4) 재학 중 근로 경험과 그 의미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전원 근로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로를 하고 있었다. 근로의 종류는 단순 노무,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과외의 경우 일부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만 하고 있었다. 근로 구직 경로는 친구나 선배 등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통하고 있었다. 근로의 의미는 대체로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책임감이나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 향후 진로와 연계되어 본격적인 일 체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등 대학생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기본급을 못 받거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권리 교육 및 아르바이트 관련 고충을 의뢰할 창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아르바이트 정보를 모아 근로 관련 구직과 구인 정보를 관리하여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5) 학업 및 취업준비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주로 영어 실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취업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강조되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어학연수나 유학, 교환학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어학 실력 입증을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떠 넘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능한 많이 따 놓으려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모전 참여가 강조된다. 그리고 장학금이나 취업 전선에서 유리한 학점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취업준비 이전에 자신의 전공이 관심이나 적성에 맞는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편입이나 휴학, 복수 전공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나아가 일단 졸업을 한 후 관심분야의 취업 준비를 하고자 한다. 결국 단순히 대학 입학만을 위한 전공 선택이 아닌 생애진로 설계와 관련된 전공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진로 및 취업 관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지원, 상담 지원, 직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 어학 및 영어 강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여가 관련 생활과 제안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에 들어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교, 아르바이트, 학교의 교내·외 활동 등으로 학기 중에는 여가를 즐기기 힘들다. 주로 시간이 생길 때는 적극적인 신체활동이나 봉사활동에 투입하기보다는 TV시청이나 컴퓨터 등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방학 중에는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이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가 콘텐츠가 부족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관련 콘텐츠 및 시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여행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일정정도 할인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사회 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13-18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나 선배로서의 경험 공유를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4. 후기청소년관련 정책현황과 문제점

1)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각 부처에 흩어져 기능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대상으로서의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으로서의 후기청소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진단하며, 당면 과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20대 초반 청년층을 정책대상에 포함하거나 그들 중 일부가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정책은 크게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고용정책과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 학업지원을 위한 학자금지원 정책 그리고 지난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표 2

정부 부처별 후기청소년관련 정책

부처	고용정책			학자금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창업(직)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고용 노동 부	• 청년층 YES 프로젝트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청년인턴제 • (취약)청년취업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 교육훈련 매칭 산학연계 • 단기일자리 제공 • 대학생을 위한 '사이버 진로 교육원' 개설 • 청년 내 일 만들기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연장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 창조캠퍼스 지원 • 학교취업지원관 제도 • 취업사관학교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취업캠프, 단기복무장병 취업캠프	• 청년벤처사업과 벤처 공동채용확대 •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중소기업청】 • 청년 기업가의 부담 절감을 위한 금융 제도신설 •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창업선도대학 확대 • 선도기업 연계 청년 창업 육성사업추진 • 청년창업협의회 구성·운영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 •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글로벌 점프' 서비스 (해외취업, 인턴, 봉사 등에 관련한 정보제공) • '월드잡' 서비스 (해외구인업체 적극 발굴 및 취업알선, 해외취업 연수실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연계 지원) • 해외인턴경험자의 해외취업지원 • 글로벌 청년취업 (GE4U)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해외인턴		
교육 과학 기술 부	• 정부출연기관 인턴제 • 학습보조 인턴교사제 • 미취업대졸생 학교내 채용지원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 창업관련 온-오프라인 플랫폼구축 • 선도-중견벤처 기업인의 특강 및 멘토링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 •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 지원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 및 지원 (여성가족부 공동수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부처 합동) • 장학금사업 (근로, 저소득층, 우수학생 등)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및 완화	• 사립대학 기숙사 신·증·개축 사업 지원 (국토해양부와 공동수행) • 기숙사 건축 규제 완화 • 민자기숙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기숙사비 인하 유도
기획 재정 부	• 공공기관인턴제 •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부처	고용정책			학자금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창업(직)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행정 안전 부	• 중앙행정기관 인턴제 • 자치단체 인턴제 • 공공DB구축 단기일자리 제공				
농림 수산 식품 부	• 농산업 인턴제		• 외식기업 해외청년 인턴 • 해외농업인턴 【농촌진흥청】 • 해외농업연구인턴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문화 관광 부	• 관광분야 인턴제 • 저작권 청년강사 육성				
외교 통상 부			• 청년해외진출지원		
지식 경제 부			• 플랜트 및 해외 전시회·해외한인 기업유럽글로벌기업 해외 인턴 지원 • 글로벌무역전문가 장기인턴		
국방 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현역 병의 대출이 자면제	
국토 해양 부			• 해외건설 청년인력 현장훈련지원제도 (OJT)		•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 대학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주택기금에서 지원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pp. 338-339.

5. 후기청소년 관련 향후 정책제언

1) 국가정책으로서의 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 방향성 수립

(1) 추진 방향

후기청소년들의 자립의지는 떨어지는 상황이고,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모에의 의존성은 여전히 높으며, 생계나 용돈 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업 수행과 자기개발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취업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연히 영어실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진로 관련 장기적 전망이나 진정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개척하려는 의지는 희박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가구의 부담과 함께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으며, 대학에 들어와 여러모로 느끼는 격차들로 인해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 이는 개별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와 함께 사회 불만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으로 향후 후기청소년 세대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면, 후기청소년세대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간 연계 조정, 관련 연구 수행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가 주요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방안

① 정책 수요 집단으로서 후기청소년 집단별 정책 수요, 영역 및 소요 예산 파악

현재 청소년기본법 상 명시된 청소년 연령대인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 정책대상임을 다시 각인하고 이 연령집단의 정책 대상으로서의 규모와 정책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역으로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정책 영역 및 기존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들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전담 부서 확보 및 총괄조정 기능 부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후기청소년들의 기능별 정책 사업 수행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괄조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를 구축하고 사무국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에 두도록 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후기청소년 세대에 특화된 정책들이 제안되거나 실행된 적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정책 대상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연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 대학생 생애진로지원센터 사업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업의 확대 운영

근시안적으로 어학 점수, 자격증 취득, 학점 관리에 내몰리고 있는 후기청소년들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자신의 생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순히 점수나 실적을 쌓기만 하고 그것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실적과 활동 이면에 여러 가지 의미와 고민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상담하고 향후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사업이 후기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애발달을 고려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것이다.

현재 후기청소년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의지가 많지 않고 자립의지가 있더라도 사회적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결국 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심리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센터 사업 지원을 남, 녀 대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④ 후기청소년세대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 종합 대책 수립

▶ 후기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대학에 진학하여 인생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후기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취업 준비 및 진로 전망, 사회 및 개인간 격차 인식, 취업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후기청소년세대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생활상담소와 취업지원관련 센터에서 각각 심리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직스트레스 해소를 전담하는 곳은 없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생활상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기청소년들도 많지 않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세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체계적 실태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핵심 지원 방안, 관리 체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후기청소년 예비부부 및 부모 교육 지원

청소년 예비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예비 부부 및 부모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주거 관련 정책 제언

(1) 추진방향

현재 수요에 비해 매우 낮은 공급량으로 수혜율이 저조한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정책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로 보증금 부담이 큰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로 4년제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대학들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공급자들의 재산권과 상충될 수 있는 대학생 임대 및 전세임대 지원이 안정적이고 보다 학생들의 생활에 밀착된 효과적인 정책서비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이 주변의 공급자와 학생 수요자를 상시적으로 연계컨설팅 하는 기능을 하는 생활지원센터(가칭)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운영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대학 소재지 규모에 따라, 즉 학교 위치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수도권 학생들과 도 지역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와 유형,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체감정도는 상이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생 주거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서비스의 방향이 기숙사 공급 및 비용 절감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이 마련이 되었다면, 이 틀 안에서 학생들의 필요 욕구를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안들의 발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학소재지규모, 즉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 과제

① 대학생전세임대 지원 조건 완화 및 물량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지원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대학생전세임대 주택 조건을 완화하여 대학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물량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대학생인 경우 대출 등의 조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② 대학생주거 월세 지원 방안 확충

대학생들의 경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물량을 확보하여 저렴한 월세를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나 신규아파트 건축 시 학교근처 아파트는 기숙사 이외에 저렴한 월세로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후기청소년대상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공동주택, 하우스 쉼어, 룸쉐어 등 주거 공간 확보를 하고, 저렴한 월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미분양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보급한다.

④ 대학생 등 청소년 거주 밀집 지역 안전 확보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대학생 주거환경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도록 한다(방법 강화 및 CCTV 의무 설치).

3) 등록금 관련 정책 제언

(1) 추진 방향

후기청소년들은 등록금 액수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으며, 등록금 액수에 비해 자신들이 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의 편의시설, 복지 혜택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총액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였다.

이들은 등록금 납부에 대해 부모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타 금융기관 대출, 일부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용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게 되며 등록금 납부를 위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졸업 및 취업 후 빚을 떠안아야 된다. 결국 전반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함께 가구가 떠안고 있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폭에 대한 제한 및 등록금의 점진적 완화정책,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 및 학자금 대출 방안 마련 등으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초저리 이자와 상환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적장학금과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의 지원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층자녀의 경우에도 일정 학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일을 하느라 지원 자격 요건인 학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점 제한 기준을 두지 않도록 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 후 휴직이나 이직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출금 상환을 일시 보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환금액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평생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다양한 장학금 제도 마련

▶ 기업과 학교 연계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먼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사회공헌사업 중 대학장학금 제도 항목을 마련하도록 독려한다. 기업에서 현재는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나, 사회공헌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와 회사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재학기간에 입사를 확정하고,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졸업 후 그 회사에 취업하는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학과에서 운영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역의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 지역사회 봉사, 재능기부 등 후기청소년의 기여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근로장학금 제도 확대

학교 내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들에 대해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내 근로장학금 제도를 확대 하도록 한다.

▶ 등록금의 일정 부분 장학금화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등록금의 일정 액수를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③ 등록금 현실화 방안 마련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정책의 한계는 관련 정책 집행을 위해 소요될 예산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세확보를 통한 대학생 등록금 현실화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국공립대를 포함한 사립대 등에서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현실적인 등록금 액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재학 중 근로 관련 정책 제언

(1) 추진 방향

청소년들의 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빙, 택배, 편의점, 배달, 이삿짐, 공장, 마트 등에서

시급제나 단기 일용직 고용 등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주로 학기 중에는 주말에, 그리고 학기 보다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근로 경험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관심분야나 전공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배움을 갖는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성이나 책임감, 혹은 힘든 일에 대한 기피 등 부차적인 학습을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애 진로 설계를 위한 전공이나 관심분야의 개척과는 거리가 멀다.

그에 따라 일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나 방향성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연계되는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을 발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발굴은 학교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할 때 초기 효과가 클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재학 중 근로가 단기간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 일시적 노동이 아닌, 근로 생애 관점에서의 재학 중 근로에 의미를 다시 재설정하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그 과정에서 자립의지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 시급제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부당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적절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① 재학 중 근로와 진로 연계 방안 마련

현재 재학 중 근로는 생활비나 용돈 벌이를 위한 단순 노무, 서비스에 국한되어 노동의 의미나 진로 관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후기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르바이트가 앞으로의 직업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이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이 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직접 하게 될 일에 필요한 기능들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실습이나 인턴 등의 형태로 재학 중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재학 중 근로 관련 각종 교육 제공

교육적 관점에서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를 바라보고, 일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학이나 청소년관련 시설 등에 근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가정경제, 근로자 권리 교육, 사회생활 기술, 매너 교육,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노동 교육의 일환으로 일을 통해 사회성, 책임감, 나아가 향후 진로 설정과 관련된 업무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교육이 청소년 전 연령에서 부족한 상황이나, 특히 실제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은 더욱 실제로 근로기준법, 근로자 권리 등을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중 다양한 인권침해, 폭력, 성폭행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수칙 등을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③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 보호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의 경우 아르바이트 관련 업무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후기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 중 인권 침해 사례, 임금 지연이나 미지급, 노동시간 엄수 등 부당근로 관련 고충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국가차원의 청소년 근로 정보 시스템 개발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및 개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민간 운영으로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와는 차별화를 기하고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모범 업소 등을 중심으로 건전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하며, 후기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지원을 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구인 광고를 내는 기관이나 업소, 기업 등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5) 취업 준비 관련 정책 제언

(1) 추진방향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었고, 막연히 일단 대학 입학을 하고 보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가 선택한 전공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진로 플랜을 세우고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대학 재학 중에 막연히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점수나 스펙에만 연연하게 되고 진지하게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와 연계된 전공을 공부하고, 이를 진로와 연결시키는 체계적인 인생 설계 기회는 갖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취업준비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대학생은 토익공부에 몰두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담당자들은 토익점수는 일정한 커트라인만 넘으면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오히려 다양한 실무 관련(기획력, 제안서 작성 등) 교육이수여부를 선호하고 있다. 그에 따라 취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당장의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진로플랜과 함께 청소년들이 인턴 및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① 진로 및 취업 준비 관련 적절한 멘토 지원

단순히 대학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대학에 진학 뒤에도 전공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휴학을 하거나 전공과 관련 없는 취업 분야를 찾아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소모적인 청년기를 보내게 된다. 또한 뚜렷한 생애 목표나 진로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를 선택하거나 편입이나 휴학 등의 선택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처지와 가장 유사할 수 있는 선배 등을 멘토로 지정하여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단순히 사회 저명 인사나 성공적인 인물을 멘토로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비슷한 전공이나 사회 경험을 가진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선배들을 멘토로 활용하도록 한다.

② 다양한 인턴십 참여 유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의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역할은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취업으로의 연결이 어렵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인턴십 활용에 적극 참여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검토한다. 여기서 저학년은 기업 체험형 인턴십을, 고학년은 취업 연계 인턴십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영어 학습 및 자격증 관련 수강비 부담 경감 대책

학기 중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학과 관련된 비용 및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과 주거비용, 용돈을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어학 학원이나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지나친 어학에의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정작 취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어학을 배워야 한다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여가 및 기타 정책 제언

(1) 추진방향

대학 재학 중에는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집중적으로 함에 따라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부담, 콘텐츠 및 시설 부재 등은 여가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를 포함하는 친교활동이나 TV나 게임, 휴식 등 정적인 여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컴퓨터 게임, 오락, TV 시청이나 휴식 활동이지만, 대학생들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활동은 문화활동, 관광, 스포츠참여 등 대체로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는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에게까지 연장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과제

① 문화 여가시설 이용 할인 혜택 부여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에도 문화 및 여가시설, 교통비 등에서 일정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청소년증 연령대를 확대하거나 성인 요금에 비해서는 할인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부모로부터의 지원도 제한된 상황에서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②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후기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봉사활동 기회가 적다는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후기청소년 사회봉사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13-18 청소년들과의 연계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기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후기청소년들이 거처온 시기에 대해 후배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나 진학에 대한 경험 공유, 예체능이나 전공 관련 재능 기부, 방과후 나홀로 아동, 청소년과의 언니 오빠 결연 사업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자원 봉사 실적은 학점 연계 또는 포인트로 누적하여 장학혜택을 부여하거나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참 고 문 헌

- 김규환 (2008). 네덜란드의 고등교육. **대학교육**, 제154호.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no=3699&b_title=네덜란드
- 박세경, 김유경, 이영민, 정진경, 이주연(2010). **민간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재홍 (2002). 세대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2002 추계 특별 심포지움**, 29-42.
- 사법연수원 편집부 (2006). **프랑스법**. 서울: 사법연수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a). **해외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보고서 (제20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b). **해외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보고서 (제21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찬호(2009).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한국청소년연구**, 20(2), 357-381.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여름호, 214-251.
- 오치선, 김진화 (1999). 후기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1(2), 153-170.
- 이광호 (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서울: 창지사.
- 이서원 (2010).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1076, 20-36.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 유형: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아미 (2007). 청소년발달과 심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편.), **청소년학개론** (pp. 99-124). 서울: 교육과학사.
- 최훈, 진영재 (2010). 후기청소년의 직업특성 평가와 취업자 이미지 차이 연구: 서비스직업군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11), 69-9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nett, J. J. (2006). G. Stanley Hall's Adolescence: A Centennial Reappraisal: Introduction. *History of psychology*, 9(3), 165-171.
- European Commission(2009). *EU Youth report*.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IARD (2001). *Study on the State of Young People and Youth Policy in Europe*. Milano: IARD.
- Weeber, R.(2009). *Disproportional Rise of Youth Unemployment: Preventing Young People from Falling Through the Cracks*. Conet Newsletter 2009. Eurostat Press Office.
- 대학내일 (2012. 5. 16). 차라리 달팽이가 되고싶다 (608호).
<http://www.naeilshot.co.kr/Articles/RecentView.aspx?p=3KBPC0gc7lq~plus~U%2FABZ3kQ4IUfaTsrBNJZtO0KgP4NR3RyGi5VahYMmw%3D%3D>
- 연합뉴스 (2011. 5. 29). 반값등록금.. 외국은 어떻게 독일·프랑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086126>에서 2012년 8월 27일 인출.
- 한국경제 (2012. 2. 20). 일하지 않는 청년, 미래도 없다: 부모·정부가 정신 차려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1951131>에서 5월 16일 인출.
- 한국일보 (2012. 1. 4). 대한민국 20대 리포트 3: 심화하는 20대 내부의 양극화.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202365021950.htm>(2012. 1. 4)에서 5월 16일 인출.

한겨레 (2011. 6. 29). 돈 없이 대학 간 죄...‘학자금 빚더미’ 떠안기는 나라.

<http://www.hani.co.kr/arti/SERIES/317/485129.html>

Asia-Pacific Interagency Group on Youth (2011). Investing in Youth Policy.

<http://www.investinginyouthpolicy.com>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 3. 22 .

발 의 자 : 강은희·김세연·민병주

김태원·이재영·박성호

최봉홍·박인숙·이에리사

문정림·길정우·홍지만 이강후 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중등교육을 받는 전기청소년에 집중되어있음.

그런데 최근의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집단이 여전히 청소년의 특성을 지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중 후기청소년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의 활동에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지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지원을 위한 활동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지원 등에 관련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제9호 신설).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후기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인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관련 지원 등을 통한 후기청소년의 역량 강화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지원

제5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탐색 등에 관련된 정책 연구를 위한 지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 8. (생략)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후기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인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u> 2.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 호의</u> ----- -----. 1. ~ 7. (현행과 같음)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청소년단체는 다음 <u>각호의</u>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u>각 호의</u> ----- -----. 1. ~ 3. (현행과 같음) <u>4.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관련 지원 등을 통한 후기청소년의 역량 강화</u>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u>각호의</u>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② ~ ⑧ (생략)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 ----- <u>각 호의</u>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지원</u> <u>11. (현행 제10호와 같음)</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u>각호의</u> 사업에 사용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② ~ ④ (생략)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u>각 호의</u> ----- -----. 1. ~ 8. (현행과 같음) <u>9. 후기청소년의 활동 및 직업진로 탐색 등에 관련된 정책 연구를 위한 지원</u> <u>10. (현행 제9호와 같음)</u> ② ~ ④ (현행과 같음)

후기청소년세대 현안과 정책과제 세미나

인 쇄 2013년 4월 9일

발 행 2013년 4월 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